『靑丘』와 재일코리안의 자기정체성*

-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

김환기**
kimhk@dongguk.edu

Contents

Ⅰ. 들어가는 말
Ⅱ. 재일코리안 사회/문화와 『靑丘』
Ⅲ. 재일코리안 문학과 『靑丘』
Ⅳ. 나오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재일코리안 문학은 일제강점기의 김사량과 장혁주 문학을 비롯해 해방 전후의 1세대, 중간세대, 현세대의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되었다. 특히 재일코리안 작가/작품을 대상으로 한일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문학사적 위치, 시대/세대별로 경향을 달리해 온 문학적 변용, 개별적인 작가/문학텍스트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경향은 여전히 몇몇 인기 작가의 문학텍스트에 집중되면서 자기(국가)중심적인 해석에서 탈피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 이는 한정된 텍스트와 타자화 된 재일코리안의 역사성을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근래의 글로벌주의는 재일코리안 문학의 다양한 주제의식과 문학텍스트에 대한 다층적 연구를 촉진시킴으로써 한층 확장된 세계관을 통해 문학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민족주의와 역사/이데올로기 중심의 담론과는 차별화 된 주제의식, 즉 코리안디아스포라의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A2A03044781)
**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탄생과 이동, 초국가적인 월경과 생산, 생활문화 중심의 현실주의, 공생철학, 중층적 아이덴티티와 같은 시좌가 그러하다. 최근 재일코리안 문학 연구가 통시적인 관점에서 각종 잡지(『民主朝鮮』, 『三千里』, 『漢陽』, 『統一評論』 등)와 문예지(『鷄林』, 『진달래(チンタレ)』, 『민도(民濤) 등)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주제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본고는 글로컬리즘(Glocalism)의 관점(탈냉전 이후 '탈중심적이면서도 다중심적인' 글로컬리즘의 관점은 인종・민족・종교・문화 간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세계관과 공존의 가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됨)에서 1980년대 전후에 발간된 재일코리안 잡지 『靑丘』의 정체성을 발간 목적과 내용구성을 주목함으로써 당대의 시대성과 잡지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靑丘』에서 기획한 '특집주제'와 개별적인 형태로 발표된 연구논문을 통해 재일코리안 사회의 자화상 및 재일코리안을 향한 주류/중심사회의 시선 등을 살펴보고, 특히 『靑丘』에 게재된 문학텍스트(소설, 평론 등)의 의미를 재일코리안 문학사의 맥락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재일코리안 사회/문화와 『靑丘』

2.1 잡지 『三千里』에서 『靑丘』로

주지하다시피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와 1972년 남북 '7・4공동성명'은 일제강점기의 '負'의 역사와 남북한의 역사적 질곡을 일단락 짓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 사건이었다. 한일 양국은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를 열어가기 시작했으며 남북한 당국은 '자주적' '평화적' 통일과 '민족적 대단결'[1]을 강조함으로써 표면적으로나마 질곡의 과거사를 넘어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된다. 하지만 한일관계와 남북관계는 실질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았으며, 당국 간의 첨예한 대립/갈등 구도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 전개되기 일쑤였

1)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한은 조국통일의 원칙으로서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합의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 국제정세 역시 냉전시대의 연장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고 일본의 내셔널리즘적 배타주의도 여전히 존재했다. 그리고 오히려 글로벌 경제가 구체화되면서 주류/중심사회와 비주류/주변사회 사이로 변주되는 갈등과 대립구도가 재일코리안 사회를 한층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계간잡지 『三千里』(1972년 창간)는 첨예하게 반목을 거듭했던 당대의 한일관계, 남북문제, 재일코리안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근원적으로 문제해결에 앞장선다는 취지를 실천한 사례일 것이다. 특히 『三千里』는 1970, 80년대의 한일관계, 남북문제, 재일코리안의 문제를 "재일이 중심이 되어" 이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촉구하게 된다. 『三千里』가 '창간사'에서 "통일조선을 향한 절실한 염원"과 "조선과 일본 사이에 복잡하게 뒤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고 상호이해와 연대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가교"[2]역을 강조했다는 점은 그러한 시대적 사명감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예컨대 『三千里』의 '특집'주제 '조선'의 역사성과 일본과의 역사적인 교류[3], 일제강점기의 모순/부조리, 동아시아의 공존공생, 재일코리안의 자화상이라는 주제의식은 그러한 취지를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지점이다. 그 중에서도 재일코리안 지식인들이 주류/중심 권력에 맞서며[4] 인류의 보편성과 평화주의에 입각해 한국의 민주화운동('김지하'와 '김대중' 사건), 재일코리안 사회의 핵심쟁점들(참정권, 법적지위, 인권문제, 지문날인, 교육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공론화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

2) 「創刊のことば」, 『三千里』, 1987・夏, p.1

3) 『三千里』에는 한일양국의 전통과 역사적 교류지점을 특집주제로 삼은 경우가 적지 않다.(「日本人にとっての朝鮮」(4), 「現代の朝鮮文学」(5), 「古代の日本と朝鮮」(7), 「近代の朝鮮人群像」(9), 「日本人と朝鮮語」(11), 「朝鮮の友だった日本人」(13), 「歴史の中の日本と朝鮮」(14), 「八・一五と朝鮮人」(15), 「朝鮮を知るために」(16), 「三・一運動六〇周年」(17), 「文化からみた日本と朝鮮」(19), 「近代日本と朝鮮」(21), 「四・一九」二十周年と韓国」(22), 「朝鮮人観を考える」(25), 「朝鮮の民族運動」(27), 「高松古墳と朝鮮」(29), 「朝鮮の芸能文化」(30), 「教科書の中の朝鮮」(32), 「近代日本の思想と朝鮮」(34), 「江戸期の朝鮮通信使」(37), 「朝鮮語とはどんなことばか」(38), 「朝鮮の近代と甲申政変」(40), 「朝鮮分断の四十年」(43), 「再び教科書の中の朝鮮」(45) 등).

4) 1960년대 70년대 재일코리안 사회는 주류/중심사회인 일본/일본인의 차별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투쟁)를 보여준다. 예컨대 1968년 김희로 사건(재일코리안 차별의 사회문제화)을 비롯해서 1970년 히타치 제작소를 상대로 한 박종석의 소송(취직 차별에 대한 사회문제화), 1976년 교토(京都) 다마히메전(玉姫殿)의 민족의상 차별 사회문제화 등은 대표적인 투쟁의 소리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러한 '경계인'의 주류/중심사회를 향한 투쟁의 역사는『三千里』이후의『靑丘』에서도 계속된다.『靑丘』역시 첨예했던 냉전논리와는 차별화된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역사성과 한일 교류사, 일본/일본인의 잘못된 역사인식, 타자화된 재일코리안 사회를 공론화하며 해결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靑丘』가 '88서울올림픽' 이후의 한일관계, 남북문제, 재일코리안 사회를 둘러싼 핵심현안들(역사성, 참정권, 지문날인, 민족교육, 인권문제 등)을 직접 거론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여기에는 1990년대를 전후해 일본인들이 "재일조선인들의 연구에 자극을 받는"분위기였고 "재일조선인 문제를 자신들의 과제로 인식"[5]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재일코리안 사회가 '객'이 아닌 주체적인 입장임을 강조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三千里』와『靑丘』의 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일코리안 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논쟁지점(영토문제, 위안부문제, 신사참배 문제 등)은 여전히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주류/중심과 비주류/주변으로 변주되는 일본사회의 계급/수직적 구도가 온존하고 있으며, 주류/중심사회의 자기(자국)중심적 논리 또한 인류의 보편성과 수평주의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三千里』와『靑丘』가 종간된 이후, 재일코리안 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일간지, 계간잡지, 문예지, 단행본 등이 계속해서 발간되고 실천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2 잡지『靑丘』의 형식과 내용상의 특징

범박하게『靑丘』의 형식과 내용구성을 짚어보면, 먼저 도입부에는 예외 없이 '특집주제'를 꾸몄고 뒤이어 '수필', '대담', '그라비어(gravure)', '연구노트', '만화', '글과 그림(絵と文)', '르포', '창작소설', '가교(架け橋)', '나의 주장', '서평(書架)', '독자의 광장' 등을 차례로 기획했다. 여기에서『靑丘』의 '특집주제'[6]를 비

5)「『三千里』と『青丘』の20年」,『季刊青丘20』, 1994・夏, p.76

6)『青丘』의 '특집주제'는「昭和を考える」(창간호),「吉野ヶ里と藤ノ木」(2),「中国・ソ連の朝鮮族」(3),「国際化と定住外国人, 三つの視点」(4),「冷戦下の分断四十五年」(5), 積み残しの戦後責任」(6),「動き出した朝鮮半島」(7),「室町・江戸期と朝鮮」(8),「燐国愛の日本人」(9),「太平洋戦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롯해서 수록 내용을 장르별로 개괄해 보면, '특집주제'가 25회, 대담・좌담회 26회, 수필과 '가교'('나의 주장' 포함) 178편, 그라비어 25회[7], 개별연구 411편('특집주제' 128편 포함), '만화'와 '글과 그림' 40편, 계록(季錄) 21회[8], 르포 16회[9], 창작소설 및 번역 문학작품 34회, 서평 67회, 그리고 심포지엄(21호)과 인터뷰(23호)가 각각 1회씩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대체로 한일 양국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역사적 교류, 일본/일본인의 잘못된 역사인식(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전후의 한일관계, 남북한의 정치/이념적 갈등구조, 재일코리안 사회의 역사성과 현재적 지점 등을 다루었고,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의 공존공생, 한일관계의 복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재일코리안의 실존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방점을 두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특집주제'와 개별연구를 바탕으로 『靑丘』의 주제의식과 특징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국의 역사/전통의식을 비롯해서 한일 양국의 역사적 교류지점을 조명하면서 재일코리안의 주체성과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한국/한국문화의 역사성과 양국의 교류사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잡지 『三千里』부터 『靑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다. 잡지 『三千里』도 그러했듯이[10] 『靑丘』는 학문적 관점에서 「무로마치(室町)・에도기(江戸期)와 조선」(8), 「임진왜란부터 400년」(11), 「조선왕조의 500년」(14) 등을 특집주제로 삼았고 개별적인 형태의 「한국의 민속 조사기행1-10」(14-24), 「근대조선시선1-10」(1-9, 11), 「압록강・환인(桓仁)을 간다」(9), 「강릉 단오제를 간다」(11), 「발해의 고도를 간다」(14), 「체험적 한국어용어해석1-7」(15-22),

---

争と朝鮮」(10), 「文禄の役から 四百年」(11), 「いま朝鮮半島は」(12), 「在日韓国・朝鮮人」(13), 「朝鮮王朝五百年」(14), 「地域に生きる韓国・朝鮮人」(15), 「いま日韓条約を考える」(16), 「八・一五解放と分断」(17), 「在日朝鮮人文学の現在」(18), 「いまなぜ戦後補償か」(19), 「転換期の在日韓国・朝鮮人」(20), 「「在日」の5 0年1-4」(21-24), 「朝鮮観の系譜」(25)로 구성되어 있다.

7) '그라비어'는 「済州道」(창간호)라는 제목을 비롯해서 「マッパラム」(2-25)이란 제목으로, '글과 그림'은 「韓くにを行く」라는 제목으로 『青丘』의 창간호에서 종간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소개된다.

8) '계록(季録)'은 「みる・きく・よむ」라는 제목으로 1-10호, 1-19호, 21,22,25호에 소개된다.

9) '르포'는 「在日を生きる」라는 제목으로 2-10호, 12-15호, 18,20,23호에 소개된다.

10) 『三千里』에서는 「古代の日本と朝鮮」(7)을 비롯해서 「日本人と朝鮮語」(11), 「歴史の中の日本と朝鮮」(14), 「高松塚古墳と朝鮮」(29), 「朝鮮の芸術文化」(30), 「教科書の中の朝鮮」(32), 「東アジアの中の朝鮮」(33), 「近代日本の思想と朝鮮」(34), 「江戸期の朝鮮通信使」(37) 등을 특집주제로 삼고 한국문화의 역사성과 양국의 문화적인 교류현장을 학문적으로 조명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국의 전통예능 판소리」(21), 「진도농촌의 정월행사」(21), 대담 「『일본 속의 조선문화』 21년」(10), '글과 그림'란에서 「가라쿠니(韓くに)를 간다1-25」(1-25), 만화 「한국시사만평」(7-20)과 같은 연구/조사지점을 통해 한국/한국문화의 역사성과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지점을 짚는다. 이러한 한반도의 정체성과 양국 간의 교류지점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일본 속의 조선 문화"를 명확히 살펴보는 것임과 동시에 재일코리안 사회의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는 일제강점기 식민/피식민, 지배/피지배, 주류/비주류 형태의 계층/수직적 체계가 강제한 제국일본의 모순/부조리를 들춰내고 학문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제국일본의 대륙진출과 식민지 정책은 강제된 일방적인 '빼앗음'의 역사였다. 잡지 『靑丘』의 특집주제인 「쌓여있는 전후책임」(6), 「태평양전쟁과 조선」(10), 「지금 왜 전후보상인가?」(19)를 비롯해서 개별적인 형태의 「'쇼와'와 오사카성・귀 무덤」(1), 「쇼와의 황민화 정책」(1), 「오키나와전(沖繩戰)에서 죽은 조선인」(2), 「강제연행 기록의 여행1-8」(7-14),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업책임」(16), 「한국에서의 '위안부'문제」(16), 「전후보상 문제의 전개와 과제」(17), 「종군위안부 문제」(21)와 같은 연구주제는 그러한 '빼앗음'의 역사적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특히 '종군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靑丘』에서 확인 되는 제국일본의 역사적 모순/부조리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글로벌 시대의 탈식민(Post Colonial)적 보편성과 공생을 위한 인문학적 안티테제(Antithese)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는 재일코리안 사회가 지난했던 한일양국의 과거사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대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데 실질적인 '가교'역을 담당하며 공존공생의 메시지를 담아낸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민족주의가 강조되던 냉전기는 물론 최근에 이르기까지 재일코리안 사회는 '반쪽바리' '이방인' '박쥐' 등과 같은 수식어를 동반하며 부정적으로 해석된 측면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글로벌 시대는 고유/주체성을 근간으로 한 글로컬리즘과 월경(越境)의 관점에서 '경계인'의 중층적 이미지가 '혼종성(Hybridity)' '가교' '내부의 타자'라는 형태로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靑丘』는 『三千里』처럼 '가교(架け橋)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란[11]을 포함해서 「가교를 지향하며」(8), 「이웃을 향한 따뜻한 표정」(8), 「선린관계 구축을 위하여」(12), 「서울・도쿄・평양」(12), 「함께 배우고, 함께 살아간다」(10), 「내일을 향해서」(10),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향해서」(15), 「일본영화 속의 조선인」(18), 「나와 이웃나라」(18), 「네이밍은 '지구촌'」(24)과 같은 학문적 접근과 대담 「선린우호의 역사를 말한다」, 「21세기를 향해서」(25)의 형식을 통해 '경계인'의 긍정적 역할론을 피력하고 있다. 덧붙이자면 2000년대에 발간된 잡지 『架橋』도 소수자/경계인, 디아스포라로 표상되는 재일코리안 문학의 중층성에 내재된 긍정적 이미지를 살린 예라 할 수 있다.

넷째는 재일코리안 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 쟁점들을 끊임없이 공론화 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잡지 『靑丘』는 1996년까지 총25권이 발간되었고 각호마다 특집주제를 꾸몄는데 그중 8번에 걸쳐 '재일코리안 사회'를 다루었다. 특히 1992년부터 1996년까지 발간된 『靑丘』(13,15,18,20-24)는 재일코리안 사회의 현재적 지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조선인문학의 현재」, 「지역에서 살아가는 한국・조선인」, 「전환기의 재일 한국・조선인」, 「'재일' 50년(1-4)」과 같은 특집주제를 비롯해서 개별적인 형태의 「재일조선인 운동사①-⑦」, 「교과서 속의 조선①-⑨」, 「지문거부운동과 재류권」, 「재일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서」(15), 「정주외국인의 법적지위」, 「지금, 재일은」(2-8), 르포 형식의 「재일을 살아간다」과 같은 주제는 잡지 『靑丘』의 발간목적과 지향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는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적 반목/대립을 넘어서 통일조국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사실 『靑丘』는 「창간사」에서 일찌감치 『三千里』에서 내세웠던 "통일조선을 향한 절실한 염원"을 계승하면서 "남북대화와 서로간의 대화에 의한 통일을 염원"[12]한다고 선언했다. 『靑丘』의 특집주제인 「움직이기 시작한 조선반도」(7), 「8・15해방과 분단」(17)을 비롯해 정담(鼎談) 「냉전체재붕괴

11) 잡지 『青丘』는 제9호부터 '가교(架け橋)'란을 마련했고 참고로 『三千里』는 창간호부터 마지막 종간까지 '가교(架橋)'란을 개설해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에 부합되는 글을 소개하였다.

12) 「創刊のことば」, 『三千里』, 1987・夏, p.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와 조선반도」(7), 개별적인 연구주제인 「남북조선과 '양안' 관계」(8), 「남북관계・새로운 단계로」(9), 「国連가맹 후의 남북회담」(10), 「『남북합의』 그리고 새로운 해」(11), 「소련연방붕괴 후의 조선반도」(12), 「두만강 하류의 경제권」(12), 「민족 공생교육을 지향한다」(21), 「통일문제와 시민의 논리」(22) 「8・15해방 50주년을 생각하며」(23) 「하나가 되자」(23)와 같은 연구는 '통일조국'을 바라는 지식인들의 "절실한 염원"의 목소리에 다름 아니다.

여섯째는 잡지 『靑丘』가 구소련권의 고려인들과 중국의 조선족에 대하여 구체적인 학문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사실 동북아지역의 해외 코리안은 태생적으로 구한말의 생활고와 일제강점기의 '강제성'에서 비롯된 '디아스포라'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 흩어진 해외 코리안들의 역사/사회/문화적인 지점을 연계해 검토하는 작업은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일이다. 『靑丘』에서 특집으로 꾸민 「중국・소련의 조선족」(3)를 비롯해서 개별적인 형태의 「연변조선족의 말과 교육」(3), 「알마아타의 '고려사람'들」(3), 「그 후의 사할린 잔류문제」(8), 「소련 조선인문단의 변천」(8), 「구소련에서 만난 조선인」(11), 「극동으로부터의 조선인 강제이주」(15), 「사할린 문학기행」(15), 「지금, 구소련 연방의 조선인은」(16), 「자료로 본 사할린 기민(棄民)1-3」(14-16), 「구소련의 조선인 지식인의 고뇌」,(19) 「구소련 중앙아시아의 조선인 사회」(19),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19), 「블라디보스톡의 별견(瞥見)」(19), 「사할린 잔류조선인의 지금」(21), 「내몽고 자치구의 조선인」(22), 「'개혁・개방' 속의 중국조선족1-3」(23-25), 「중국조선족의 민족교육」(23)과 같은 주제는 동북아 지역의 역사/시대성에 대한 공유/재발견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예컨대 브라질에서 발간된 문예잡지 『열대문화』에 한국과 해외에 거주하는 학자들의 글을 소개하거나[13] 북미지역 코리안문학을 「재미 문인 작품집」[14] 형태로 꾸미는 작업도 같은 맥락의 소통/교류로 이해할 수 있다.

일곱째는 탈경계적인 문학/예술적인 소통을 통해 한일양국 사이에 형성된 간

13) 열대문화에는 브라질에 거주하는 코리안뿐만이 아닌 한국의 전경수 「한국이민의 남미사회 적응문제」(제6호), 권영민 「남북분단과 현대문학」(제6호), 최일남 「문학과 언어의 땅」(제8호), LA거주 인익환의 「마음의 고향」(제9호), 독일거주 류종구의 「브라질을 다녀와서」(제9호) 등도 함께 소개된다.

14) 『열대문화』(제7호), 열대문화동인회, 1990, pp.57∽6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극을 매우고 재일코리안 사회의 보편성과 열린 세계관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문학 '특집'으로 기획된 「재일문학을 읽는다」(19)[15], 「조선문단 안팎」, 「페미니즘과 조선 序-6」(15-20), 「근대조선시선」을 비롯해서 문학관련 대담・좌담, 개별적인 「'재일문학' 20년의 인상」, 「루쉰・조선인・「루쉰일기」」(3), 「소련조선인 문단의 변천」(8), 「임진왜란과 역사소설」(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화」(15), 「식민지문학에서 재일문학으로」(22) 등에 이르기까지 『靑丘』는 많은 지면을 문학 장르로 채우고 있다. 특히 탈경계적인 월경/이동의 관점에서 한국문학(소설, 시, 민화, 동화)과 중국의 조선족 문학(소설)을 일본어로 번역해 소개하고 동북아시아(조선・구소련・중국・일본)의 문학/예술적 교류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여덟째는 해방직후의 한반도 정세와 <제주도 4・3사건>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는 점이다. 재일코리안 사회는 태생적으로 해방직후 격동기 한반도의 정치이념적인 갈등/대립고도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제주도 4・3사건>은 해방조국의 이데올로기적 혼란상을 표상하는 비극적인 역사의 한 지점임에 틀림없다. 이는 해방직후 재일코리안의 잔류(귀국포기)문제를 포함해서 '재일조선인연맹'과 '재일한국인거류민단'의 출범과정에서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잡지 『靑丘』의 「빨치산 소설과 실록(상,하)」,(4,6) 「실록 제주도 소년 빨치산(1-3)」(5,6,8), 「빨치산 총사령관(総帥)・이상현」(5), 「해방정국과 제주도 4・3사건」(17) 등과 같은 주제가 대표적이다. 물론 <제주도 4・3사건>을 둘러싼 학문적 접근은 잡지 『三千里』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제주도 반란(上,中,下)」, 「4・3 제주도봉기」 등) 특히 이러한 격동기의 '제주도'를 둘러싼 학문적 접근은 '안'이 아닌 '바깥', '중심'이 아닌 '주변', 타자화 된 공간/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잡지 『靑丘』는 매호마다 '書架'란을 통해 재일코리안 사회와 한일양

15) 1994년 2월(春)에 발간된 『青丘』(19호)에는 <在日朝鮮人文学の現在>라는 특집이 기획되었고 실린 내용은 「在日朝鮮人文学とは何か」(川村湊), 「第一世代の文学略図」(磯貝治良), 「季録=みる・きく・よむ」(中村輝子), <在日文学を読む>:「鄭承博・ものがたりの原点」(金重明), 「金鶴泳と在日三世の私と」(文真弓), 「李恢成文学の今日」(鄭閏熙), 「梁石日の『狂躁曲』を読む」(沈光子), 「For Yangji」(元秀一), 「李良枝のこと」(金英姫), 在日一世の詩人とわたし(李美子)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국과 관련된 주제를 구체적으로 조명한 서적들을 소개한다. 『해방 후 재일조선인 운동사』을 비롯해서 『조선여성운동과 일본』, 『여성들의 이카이노』 등 정치경제, 사회문화, 문학과 예체능에 이르기까지 관련 서적 일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재일코리안 사회를 대표하는 지식인/학자들의 대담・좌담・정담의 공간을 통해 일본의 역사인식과 재일코리안 사회를 둘러싼 현안들을 "재일의 자기주체성의 다양화"[16]란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문제해결을 모색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대담 「쇼와(昭和)를 말한다」(旗田巍・幼方直吉,1), 「일본의 전후책임을 생각한다」(旗田巍・大沼保昭,4), 연속좌담회 「'재일' 50년을 말한다 1-4」(21-24)[17], 「오늘날 조선반도와 일본」(강재언・小林慶二・이진희,25), 「21세기를 향해서」(강재언・문경수,25)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靑丘』가 「일본계 아메리카인의 강제수용」(4), 김 게르만의 「지금, 재소련 조선인은」(10), 「독일의 전후처리를 둘러싸고」(14), 「중국에서 본 조선전쟁」(16), 「미일(米日) 마이너리티 회의(會議)로부터」와 같이 한일과 남북, 재일코리안 사회를 벗어난 지점에서 일제강점기와 마이너리티의 문제를 천착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학문연구에서 융・복합적 현상과 국제공동연구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대륙)를 넘나드는 『靑丘』의 기획이야말로 실질적이면서도 신선한 담론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靑丘』의 다양한 학문적 접근은 한일관계와 남북문제에 새로운 길을 모색함과 동시에 재일코리안 사회의 실질적인 지위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靑丘』의 학문적 담론공간은 1970년, 80년대에 발간된 『三千里』(1975-1987)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시대사회성의 표상이며 재일코리안 사회의 학문적 거점 구축과 지적인 선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잡지의 차이를 굳이 언급하자면 『三千里』가 다양한 연구관점을 통해 '통일조선'과 한일 양국의 역사적 반목을 넘어선 자기정체성 확립과 '상호이해'에 방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靑丘』(1987-1996)는 전후 재일코리안 사회의 현재적 지점을 통해 실

16) 김태영, 「에스닉미디어에 나타나는 자기정체성의 전개」, 『한국민족문화 30』, 부산대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7, p.214

17) 연속좌담회 「'재일' 50년을 말한다」는 총4번에 걸쳐 진행된다. 제1회 좌담회(제21호)는 김달수, 박경식, 양영순, 이진희, 제2회는 강재언, 박경식, 양영순, 제3회는 김덕환, 배중도, 문경수, 제4회는 김경득, 양징자, 윤조자, 강상중이 참가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질적인 권익과 지위를 확보하면서 탈경계적 교류와 공생에 방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재일코리안 문학과 『靑丘』

3.1 『靑丘』에 실린 문학텍스트

잡지 『靑丘』는 총25권이 발간된 만큼 비교적 많은 창작소설과 평론이 수록된다. 매호마다 수필과 서평을 실었고 가끔씩 대담형식을 취한 문학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작가의 시, 민화, 동화를 일본어로 번역해 싣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먼저 잡지 『靑丘』에 수록된 창작소설을 비롯해서 평론, 번역, 대담, 수필, 서평의 내용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장르구분	수록내용(창간호－제25호)
소설	산사전기-김중명・9), 쓰시마에서(村松武司・14), 어두운 봄(양석일・17), 제주의 여름(원수일・24)
평론	유희(由熙)-빛 속으로(1), '재일문학' 20년의 인상(1), '자살(自死)'을 넘어서(2), 문학자의 복권(2), 루쉰(魯迅)・조선인・「루쉰일기」(3), '쇼와'의 문학이란(3), 해방 후의 김사량(3), 빨치산 소설과 실록(상하・4,6), 와쓰지(和辻)・기노시타(木下)・하나무라(花村)(4), 잡지로 보는 '재일'의 현재(4), 비극의 「북한의 시인」(5), 소련조선인문단의 변천(8), 조선시대의 아베 요시시게(朝鮮時代の安部能成, 9), 쓰다 젠(津田仙)과 두 명의 조선인(9), 소가노야 고로 극(劇)의 「조선인」(9), '재일'세대와 시(9), 조선문단 안팎1-6(10-12,15,16,18), 쇼센쿄(昇仙峽) 에 남긴 유길준의 묵서(10), 임진왜란과 역사소설(11),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의 서적(11), 풍토의 변용이라는 것(11), 시인 윤동주의 동반자・송몽규(12), 식민지시대의 재일조선인 문학(13), '재일'문학의 변용과 계승(13), 추모-이양지 소론(13), 소설 속의 '종군위안부'(13), 이백년의 기록-박지원의 '실학'(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화(15), 페미니즘과 조선序-6(15-20), 전후책임을 추궁하는 문학(15), 사할린 문학기행(15), 그려진 강제연행・군대 '위안부'(17), 승전(承前)・나의 문학과 생활(17-25)[18], 새로운 문학세대와 '재일'(18), 재일조선인문학이란 무엇인가(19), 제1세대의 문학약도(19), 『민주조선』 검열상황(19), <특집>:재일문학을 읽는다.(정승박・이야기의 원점. 김학영과 재일3세인 '나'. 이회성 문학의 오늘. 양석일의 「광조곡」을 읽는다. For YangJi. 이양지에 관한 것. 재일1세의 시인과 나. 러시아문학의 다민족적 세계. 지금 한 번의 계기ー조선. 일본에게 조선 어는 무엇이었나, 문학으로 보는 히데요시(秀吉)의 침략(19), 미스터리와 조선・한국(21), 환상(幻)의 이태준 구출작전(상,하,補遺・21,22,25), 방랑시인・김삿갓(金笠)의 시와 생애(21), 胡風과 장혁주(상하・22,23), 식민지문학에서 재일문학으로(22), 佐木隆三와 조선(22), 고려인에서 코리안으로(23), 무라마쓰 쇼후(村松梢風)와 「조선여행기」(상하・24,25), 조선한국을 그리는 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재, 순문학에서 대중문학으로(24), 한국의 본해(本解)와 일본의 본지(本地) 이야기(物語)(25), 고다 아야(小田実)의 조선・외1편(25), 자유시에서 정형시로(25),
수필[19]	다치하라 마사아키와 조선(10), 「표해록」(14), 작품의 모티브(16), 다치하라 마사아키와 고향(16), 일본영화 속의 조선인(18), 『슬픈 섬 사할린』 집필을 끝내며(19), 「페미니즘과 조선」 집필을 끝내며(21), 조선에서 발행된 잡지(24)
번역 (시・소설・민화[20]・동화)	소설[21]: 상장(임원춘・1), 이런 여자가 있었다(김학철・2), 재수 없는 남자(우광훈,3), 녹슨 철길(문순태・4), 활어조에서(최학・6), 껍질과 속살(현길언・8), 덕흥 나그네(정창윤・12), 근대조선시선(1-9, 11)[22], 민화: 단 한번의 기회(1), 이상한 맷돌(2), 깨진 거울(3), 선인의 세계(4), 잉어공주(5), 정이 깊은 형제(6), 동화: 귀옛말(14)[23]
대담・좌담	잡지 『조선인』 21년(9), 『三千里』와 『青丘』 20년(20)
서평[24]	아리랑 고개의 여행자들(안우식 번역,1), 여자들의 이카이노(1), 서울의 우수(2), 시카고 복만(大村益夫 번역,2)[25], 아시아의 교과서에 기록된 일본의 전쟁(4), 환상의 대국수(8), 우리 조국(8), 제3세계 문학으로의 초대(11),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11), 남부군(안우식 번역,12), 사랑하는 대륙이여(12), 현해탄은 알고 있다(1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藤本敏和 번역,13), 전후 일본문학 속의 조선한국(14), 두둥실 달이 뜬다면(14), 봉선화의 노래(15), 정승박저작집(17), 넘지 못한 해협(20),

(소설과, 평론, 수필 등 작품명 뒤의 괄호 안 숫자는 『青丘』의 발행호수를 표기한 것임. -필자)

---

18) 김달수는 「私の文学と生活」란 시리즈를 통해 자신의 문학 인생과 문학관을 밝혔다.

19) 『青丘』의 '수필'란에 총122편, '가교'에 43편, '나의 주장'란에 13편이 소개된다. 여기서는 작가/작품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수필만 소개했다.

20) 한국 민화의 소개 작품과 번역자는 다음과 같다. 「단 한번의 기회(たった一回の機会)」(高島淑郎 역, 저본: 이원수・손동인 편, 『한국전래동화집』, 창작과 비평사, 1984), 「이상한 맷돌(ふしぎなひき臼)」과 「깨진 거울(割れた鏡)」은 有吉登美子 역, 저본: 김영일, 『한국전래동화집』, 육민사, 1971), 「선인의 세계(仙人の世界)」(有吉登美子 역, 저본: 이원수 『한국전래동화집』, 계몽사, 1971), 「잉어공주(鯉の姫さま)」와 「정이 깊은 형제(情の深い兄弟)」(有吉登美子 역, 저본: 이원수・손동인 편, 『한국전래동화집2』, 창작과 비평사, 1980)

21) 한국 소설은 「상장」을 비롯한 총7편의 소설이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에 의해 번역되었다.

22) 오무라 마스오는 한국의 시를 선별해 총10회에 걸쳐 번역 소개했다. 창간호(임화 「한잔 포도주를」 외2편), 제2호(김용제의 「슬픈 과실」 외2편), 제3호(윤일주의 「민들레 피리」 외2편, 윤광주의 「명령장」 외2편, 윤동주의 「고향집」 외2편), 제4호(김달진의 「체념」 외5편), 제5호(김조규의 「해안촌의 기억」 외2편), 제6호(박세영의 「나에게 대답하라」 외1편), 제7호(백석의 「흰 밤」 외3편), 제8호(이하윤의 「동포여 다 함께 새 아침을 맞자」 외3편), 제9호(윤곤강의 「변해(弁解)」 외4편), 제11호(이용악의 「검은 구름이 모여든다」 외1편)

23) 동화 「귀옛말(内緒ばなし)은 이미자의 번역으로 소개된다(저본: 『한국전래동화집4』, 창작과 비평사, 1990),

24) 『青丘』의 '서평(書架)'란은 번역본을 포함해서 총67권(번역본 포함)에 대한 서평을 실었는데 여기에서는 문학 관련 자료만 소개했다. 서평에서 거론한 일본어 작품명은 「アリラン峠の旅人たち」, 「女たちの猪飼野」, 「 ソウルの憂愁」, 「シカゴ福万」, 「幻の大国手」, 「わが祖国」, 「息子への手紙」, 「愛する大陸よ」, 「ポッカリ月がでました」, 「鳳仙花のうた」 등이다.

25) 소설집 『시카고 복만(福万)』은 중국의 조선족 작가 장지민의 작품(「시카고 복만이」-大村益夫 번역)을 비롯해서 총13명 작가의 중・단편소설로 구성되어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靑丘』에는 많지는 않지만 창작소설, 평론, 대담, 번역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문학텍스트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창작소설은 양석일의 「어두운 봄(暗い春)」, 김중명의 「산사전기(算士傳奇)」, 원수일의 「제주의 여름(チュジュの夏)」, 무라마쓰 다케시(村松武司)의 「쓰시마에서(対馬にて)」가 전부이다. 이 4편의 단편소설 내용을 개략적으로 짚어보면 역시 조국과 민족의식을 천착하면서도 재일코리안의 현재적 지점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시대 산학자들의 산학에 대한 집념을 통해 조선의 전통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김중명의 소설, 이카이노(大阪猪飼野)의 재일코리안 사회를 일상화된 제주도와 연계시켜 서사화 한 원수일의 소설, 토지수탈정책이 본격화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제주 해녀들의 간고한 삶과 조선의 전통적 이미지(유교식 혼례)를 묘사한 양석일의 소설, 한일 양국의 역사적 소통공간인 쓰시마를 조선총독부로부터 추방당한 아라이 도루(新井徹)의 정신을 통해 묘사하는 무라마쓰 다케시의 소설은 정치/이념, 역사/민족의 논리를 천착하면서도 한층 다변/다층화 된 형태의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때문이다. 특히 김중명의 「산사전기」에서는 조선시대의 역사, 전통문화와 민속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평화적 공존과 보편성을 피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평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문학적 교류지점(고대에서-현대까지), 역사와 문학의 연계성(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 재일코리안 문학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예컨대 역사적인 인물(박지원, 김삿갓, 윤동주, 이태준, 아베 요시시게(安部能成), 소가노야 고로(曽我廼家五郎), 쓰다 젠(津田仙) 등), 역사적인 사건(임진왜란, 위안부문제, 전후책임 등), 사상/이념(페미니즘, 민족주의 등)과 문학이라는 관점과 '탈경계'적 세계관과 보편성을 천착한 비평적 지점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재일코리안 문학 관련의 평론은 문학사적 변용, 개별적인 작가/작품론, 타자와의 교류/소통, 미래지향적 가치관, 글로컬리즘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의 세계관과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구소련권의 고려인 문학, 중국의 조선족 문학, 사할린 문학과 동시에 재일코리안 문학을 조명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태생적으로 정치/역사, 사회문화적인 변용지점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사상적 공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통분모가 존재함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의 비평적 시좌(「식민지문학에서 재일문학으로」, 「고려인에서 코리안으로」, 「순문학에서 대중문학으로」, 「자유시에서 정형시로」)는 세계문학과 보편성을 천착한 문학의 확장·공유라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수필은 총178편으로 '수필'란에 122편, '가교'에 43편, '나의 주장'에 13편이 게재되었다. 내용은 대체적으로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 남북한 문제, 재일코리안 사회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감상과 주장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문학적인 주제를 다룬 것은 「다치하라 마사아키(立原正秋)와 조선」, 「표해록」, 「작품의 모티브」, 「다치하라 마사아키와 고향」, 「일본영화 속의 조선인」, 「『슬픈 섬 사할린』 집필을 끝내며」, 「「페미니즘과 조선」 집필을 끝내며」, 「조선에서 발행된 잡지」 등을 들 수 있다. 수필은 문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엔 분명히 한계가 있으나 발전적인 한일관계, 조국의 통일, 재일코리안의 반듯한 자리매김을 위한 지식인들의 진솔한 목소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번역은 한국의 시, 소설, 민화, 동화가 주로 번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번역된 소설 작품[26]은 임원춘의 「상장(賞狀)」, 김학철의 「이런 여자가 있었다(こんな女がいた)」, 우광훈의 「재수 없는 남자(運のない男)」, 문순태의 「녹슨 철길」, 최학의 「활어조에서(生け簀にて)」, 현길언의 「껍질과 속살」, 정창윤의 「덕흥 나그네」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번역된 작품이 한국 작가와 중국 조선족 작가들의 작품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격동기 근현대사의 비극의 중심지였던 제주도를 문학적으로 형상화 한 현길언의 소설과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뇌했던 지식인/민중을 천착한 중국 조선족 작가들(임원춘, 김학철, 우광훈)의 작품은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조국/민족, 역사/이념의 변용지점을 형상화 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또한 한국의 전통과 역사/민속의 이미지를 묘사한 문순태와 정창윤의 소설과 번역시, 번역민화, 번역동화는 한국적인 요소와 교훈성을 피력한다는 점에서 재일코리안 사회의 아이덴티티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문학관련 대담과 좌담은 두 번에 걸쳐 소개된다. 「잡지 『조선인』 21년」과 「『三千里』와 『靑丘』 20년」이 그것이다. 전자는 21년간 발간되었던 잡지 『조선인』이

26) 소설의 번역은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에 의해 이루어졌고 번역자는 간략하게 각 번역 작품에 대한 저자와 저본으로 삼은 텍스트 등에 대해 소개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종간을 맞으면서 하타다 다카시(旗田巍)와 쓰루미 준스케(鶴見俊輔)가 나누는 대담이고, 후자는 『三千里』부터 『靑丘』까지 20년 동안 편집위원으로 활동해온 김달수·강재언·이진희의 좌담이다. 쓰루미 준스케는 「잡지 『조선인』 21년」에서 1969년에 창간된 잡지 『조선인』은 오무라(大村)수용소의 폐지운동과의 관련이 깊고 "김동희 구원운동이 재일조선인 문제에 대한 일본인의 시민운동으로서는 선구"[27]적이었다는 점, 베트남전쟁의 반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와의 만남, 국제화를 향한 지표로서 '재일조선인'의 위치 등을 진솔하게 피력했다. 그리고 강재언, 이진희, 김달수는 「『三千里』와 『靑丘』 20년」에서 '7·4남북공동성명'의 취지를 잡지편집의 기본으로 삼았다는 점,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냉정한 대처, 잡지의 긍정적인 역할들(재일조선인의 문제를 국제적인 시선과 일본/일본인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 기업인들의 문화사업 지원(한창우와 서채원), 재일코리안 사회의 주체성 등을 강조하였다.[28] 『靑丘』에 실린 한일양국의 지식인 대담은 결국 재일코리안이 안고 있는 핵심 현안들을 이슈화하고 해당 당사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주체적으로 접근하기까지 잡지(『조선인』 21년, 『三千里』와 『靑丘』 20년)의 역할이 컸음을 밝히고 있다.

서평은 재일코리안 작가의 작품집을 비롯해서 한국의 문학작품과 중국 조선족 작가의 작품을 번역한 단행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먼저 재일코리안 작가인 정승박(『정승박저작집』), 김중명(「환상의 대국수」), 김재남(『봉선화의 노래』) 등의 작품집을 확인할 수 있고, 안우식(뿌리깊은 나무의 『아리랑 고개의 여행자들』, 이태의 『남부군』), 오무라 마스오(장지민의 『시카고 복만이』), 후지모토 도시카즈(藤本敏和,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의해 한국문학과 중국의 조선족 문학이 일본어로 번역 소개된다. 그 밖에도 가와무라 미나토(『서울의 우수』), 이소가이 지로(『전후 일본문학 속의 조선한국』)의 평론집 등 비록 전체를 언급은 못했지만 『재일외국인』, 『창씨개명』, 『조선인 여성이 본 '위안부문제'』, 『조선예능사』와 같은 일제강점기와 재일코리안 사회의 현재적 지점을 다룬 단행본도 포함된다. 그야말로 『靑丘』의 '서평'란은 지식장의 확장과

27) 旗田巍·쓰루미 준스케 대담, 「잡지 『조선인』 21년」, 『靑丘』(제9호), 1991·秋, p.67
28) 김달수·강재언·이진희 좌담, 「『三千里』와 『靑丘』 20년」, 『靑丘』(제20호), 1994·夏, pp.68∽77참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공유라는 차원에서 국가와 민족, 역사와 이념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소통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문화지점이라 할 수 있다.

3.2『靑丘』의 문학사적 의미

『靑丘』(창간호~제25호)에 소개된 문학텍스트는 소설(단편)을 비롯해서 평론과 수필, 시, 소설, 동화, 민화가 포함된다. 창작소설(단편)은 단 4편이며 대부분의 시, 소설, 동화는 한국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해 소개했고 평론과 수필은 비교적 많은 분량이 실린다. 특히 소개된 문학작품(창작)이 지극히 적은 것은 작가의 인지도와 작품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이들 작품이 재일코리안 문학사에서 제한적으로 조명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재일코리안 문학사를 논할 때 세대론의 관점이든 작품내용 중심의 관점이든 작가의식과 내용상의 독창성을 거론하기 위해서는 확장된 형태의 양·질적 측면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된 문학텍스트(창작소설, 번역소설, 평론과 수필 등)에 대한 문학적 평가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창작소설의 경우만 하더라도 탈민족적 글쓰기 측면에서 개별적인 작가/작품의 독창성과 재일코리안 문학사의 변용지점으로 거론되는 다양/중층적인 이미지, 세계문학의 관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양석일 소설은 조국/민족, 역사/이념적인 굴레를 천착하면서도 "질주감 넘치는 경쾌한 세계"[29]를 풍부한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살려 표현하였고, 김중명의 소설은 조선의 장기, 바둑, 산학자 등 역사적인 전통의 이미지를 서사화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수평적 개념의 "동아시아의 공동 공간"[30]을 피력하였다. 또한 원수일의 소설은 재일코리안 사회의 고향인 이카이노를 무대로 '조선적인 정서'와 사회문화적 크레올 현상을 일상생활과 연계시켜 서사화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재일코리안 특유의 장소/공간의 이미지를 천착하고 독창적인 문학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대중적인

29) 양석일 소설은 '부'의 역사적 지점을 "오직 무겁고 괴로운 형태의 이야기"가 아닌 "유머러스한 홍소(哄笑)로 가득한 세계", "질주감 넘치는 경쾌한 세계", "오탁(汚濁) 자체가 광채로 승화되는 세계"로 그려낸다.(高橋敏夫,「概説―やんちゃんな創造的錯乱者」,『<在日>文学全集』, 勉誠出版, 2006, p.374.)

30) 磯貝治良,「金重明」,『新日本文学-<在日>作家の全貌-94人全紹介』, 新日本文学会, 2003(5·6合併号), p.6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인기 소설가의 작품이 독자들에게 처음 소개되고 작품성을 평가받는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한편 재일코리안 문학사에서 『靑丘』에 소개된 평론과 수필은 양적으로도 적지 않지만 질적으로도 지극히 소중한 지점을 차지한다. 글로컬리즘의 관점에서 코리안디아스포라의 태생적인 공통분모에 천착하면서 동북아지역(구소련권, 중국 조선족, 사할린)의 코리안 문학을 통시적으로 조망하고, 타자의 시선(통일독일, 일본계 아메리카인, 미일 마이너리티)을 통해 당사자(국)의 현재적 지점을 조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평론가로서 당대를 대표하는 가와무라 미나토, 안우식,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의 평론세계는 『靑丘』의 문학적 지향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재일코리안 문학의 전체지형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필 역시 문학과 관련된 글을 포함해서 한편으로 한일관계, 남북문제, 재일코리안의 현재적 지점을 동아시아의 공존과 평화, 실생활과 현실주의라는 관점 하에 소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靑丘』는 재일코리안 문학에 한정해 거론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창작소설, 한국소설의 일본어 번역과 같은 형식을 통해 코리안디아스포라 차원의 문학적 인식을 이끌어내고 동아시아지역의 공동체 정신을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예컨대 창작 작품집과 비평서가 서평을 통해 소개되고 독자층을 확대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일본문학에서 재일코리안 문학, 한국문학에서 재일코리안 문학이라는 관점을 확보하고 문학적 확장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는 창작과 비평적 세계가 국가/민족주의, 속문주의를 넘어서 문학적 보편성에 근거한 세계 문학적 차원의 접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글로컬리즘적 시좌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88서울올림픽'을 통해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층 월경적인 글로컬리즘의 시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밖에 『靑丘』는 한일관계, 남북문제, 재일코리안 사회의 현재적 지점을 『靑丘』 이전과 이후의 잡지 사이에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1970년대에 간행되었던 『마당』, 『삼천리』, 『잔소리』에서 강조되었던 담론지점(조국/민족주의, 역사와 이념)과 1990년대에 간행된 『호르몬 문화』, 『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리랑』의 문제의식(탈식민주의, 세계주의)의 중간지점에서 『靑丘』는 당대의 실질적인 시대/사회성이 어떻게 공유되고 분화해 갔는지를 짚고 있다. 그리고 『靑丘』는 같은 1990년대에 간행된 『민도』, 『우리생활』, 『제주도』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효하다. 일종의 글로벌리즘의 도래와 함께 디아스포라의 마이너스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플러스적 가치가 조명되기 시작하는 시점의 인문학적 담론구조를 여기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Ⅳ. 나오는 말

본고는 글로컬리즘의 관점에서 잡지 『靑丘』를 주목하고, 재일코리안 사회와 『靑丘』의 자기정체성 문제를 고찰하였다. 특히 『靑丘』의 '특집주제'와 개별적인 연구논문을 통해 재일코리안 사회의 자화상, 재일코리안을 향한 주류/중심사회의 시선을 짚었다. 개략적이지만 『靑丘』에서는 한국의 역사/전통의식과 양국의 역사적 교류지점을 통해 재일코리안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자 했고, 제국 일본의 모순/부조리를 학문적으로 들춰내고 조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靑丘』는 재일코리안의 실질적인 '가교'역을 하며, 재일코리안 사회의 현재적 지점에 대한 검토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통일조국의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탈경계적 문학/예술의 소통 차원의 코리안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조명, <제주도 4·3사건>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靑丘』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단행본 소개, 양국 지식인/학자들의 대담·좌담·정담을 통해 한일관계, 남북문제, 재일코리안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내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靑丘』의 담론공간은 1970년, 80년대에 발간된 『三千里』(1975-1987), 동시대에 발간된 『민도』, 1990년대 후반에 발간된 『호르몬 문화』와 차별된 관점에서 시대정서를 표상한 문화지점이라 할 수 있다.

『靑丘』에 게재된 문학텍스트(소설, 평론 등)는 비록 양·질적으로 풍성하지는 못했지만 재일코리안 문학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소개된 양석일, 김중명, 원수일이라는 작가가 재일코리안 문학에서 차지하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비중도 있겠지만, 그들의 창작소설이 재일코리안 문학의 다양/중층성 차원에서 작가적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컬리즘의 관점과 탈민족적 글쓰기 차원에서 조국/민족, 정치/이념에서 한발자국 벗어난 지점에서 형상화 되는 양석일의 엔터테인먼트 요소, 김중명의 '조선적인 전통과 미'를 천착한 역사소설의 형식, 원수일의 이카이노 코리안 타운의 흥미진진한 일상생활 속의 현실주의는 재일코리안 문학에서 놓칠 수 없는 소중한 지점이다. 물론 통시적인 관점의 문학적 평가와 함께 미시적 관점의 평론을 선보인 가와무라 미나토, 안우식, 이소가이 지로의 평론활동과 한국문학의 일본어 번역도 재일코리안 문학사에서 소중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김태영(2007)「에스닉미디어에 나타나는 자기정체성의 전개」『한국민족문화30』, 부산대한국민족문화연구소
김환기(2007)『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김환기(2009)「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혼종성'과 세계문학으로서의 가치」『日本学報』第78輯, 한국일본학회
나승희(2007)「재일한인 잡지의 변화의 양상과 『青丘』의 역할」『일어일문학』제36집, 한국일어일문학회
이영미(2009)『한인문화와 트랜스네이션』, 한국문화사
최강민(2009)『탈식민과 디아스포라 문학』, 제이엔씨
피터 버크 저, 강상우 역(2012)『문화 혼종성』, 이음
『三千里』(第1号∽第50号), 三千里社, 1975∽1987.
『青丘』(第1号∽第25号), 青丘文化社, 1989∽1996.
『열대문화』(제1호∽제12호), 열대문화동인회, 1986∽2012
高橋敏夫(2006)「概説-やんちゃんな創造的錯乱者」,『<在日>文学全集』, 勉誠出版
磯貝治良(2003)「金重明」,『新日本文学-<在日>作家の全貌-94人全紹介』, 新日本文学会
礒貝治郎(2006)『<在日>文学全集』, 勉誠出版

❖ 투고일 : 2014.06.30
❖ 심사완료일 : 2014.08.11
❖ 게재확정일 : 2014.08.1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국문초록

『靑丘』와 재일코리안의 자기정체성

김환기

본고는 글로컬리즘의 관점에서 잡지 『靑丘』를 주목하고 재일코리안 사회와 『靑丘』의 자기정체성 문제를 비롯해서, 『靑丘』의 '특집주제'와 개별적인 연구논문을 통해 재일코리언 사회의 자화상, 재일코리언을 향한 주류/중심사회의 시선을 짚었다. 정리해 보면 『靑丘』에서는 한국의 역사/전통의식과 양국의 역사적 교류지점을 통해 재일코리언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자 했고, 제국일본의 모순/부조리를 학문적으로 들춰내며 조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靑丘』에서는 재일코리안의 실질적인 '가교'역, 재일코리언 사회의 현재적 지점에 대한 검토와 해결책 모색, 통일조국의 실현을 위한 목소리, 탈경계적 문학/예술의 소통 차원의 코리안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조명, <제주도 4·3사건>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을 보여주었다. 또한 『靑丘』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단행본 소개, 양국 지식인/학자들의 대담·좌담·정담을 통해 한일관계, 남북문제, 재일코리언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내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靑丘』의 담론공간은 1970년, 80년대에 발간된 『三千里』(1975-1987), 동시대에 발간된 『민도』, 1990년대 후반에 발간된 『호르몬 문화』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시대정서를 표상한 문화지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靑丘』에 게재된 문학텍스트(소설, 평론 등)는 비록 양·질적으로 풍성하지는 못했지만 재일코리언 문학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특히 소개된 양석일, 김중명, 원수일의 소설은 재일코리안 문학의 다양/중층성 차원에서 작가적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작품이며, 가와무라 미나토, 안우식, 이소가이 지로의 평론과 한국문학의 일본어번역은 재일코리안 문학의 확장과 소통/교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ey Words : 靑丘, 三千里, 주체성, 재일코리언, 코리안디아스포라, 보편성, 세계문학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Chungku(青丘) and the self-ident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Kim, Hwan-gi

This paper focuses on the magazine *Chungku(青丘)*from the perspective of glocalism, examining the socie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 identity of *Chungku(青丘)*. It also talks about how Korean society in Japan is being portrayed and how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are viewed by the mainstream Japanese society, based on the "Special Topic" in *Chungku(青丘)* and research papers. *Chungku(青丘)* attempted to clarify the ident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referring to Korea's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sense of tradition as well as the history of ex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In addition, it shed academic light on the contradictions and irrationalities of the Japanese Empire. The magazine reviewed the role of Koreans living in Japan as a real "bridg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current state of Korean society in Japan and looked for ways to address current issues. It also discussed the voic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and Korean diaspora literature in terms of cross-boundary communications of literature and art, and took a scholarly approach to the April 3rd Jeju Island Incident. Moreover, *Chungku(青丘)* made efforts to find solutions to practical problems between Korea and Japa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of the Korean society in Japan, introducing its readers to books of various genres related to them and covering conversations, discussions, and dialogues among pundits and scholars of the two nations. It can be said that the discourse space of *Chungku(青丘)* is a space that reflects the zeitgeist from a perspective different from those of *Samchulli(三千里)* issued between 1975 and 1987, *Mindo(民濤)* around the same time as *Samchulli(三千里)*, and *Hormone Bunka(ほるもん文化)* in the late 1990s. Although the literary texts (novels, critiques, etc.) published in *Chungku(青丘)* were lacking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they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in the literary history of Korean society in Japan. The novels of Seokin Yang, Joongmyung Kim, and Sooil Won issued in *Chungku(靑丘)*, in particular, demonstrate the authors' identity, with regard to diversity and multi-layer nature of literature of Koreans who reside in Japan. Critiques written by Minato Kawamura, Woosik Ahn, and Jiro Isogai as well as Japanese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are meaningful in terms of the expansion, communication, and exchange of literature of Koreans residing in Japan.

Key Words : *Chungku(靑丘)*, *Samchulli(三千里)*, identity, Korean residents in Japan, Korean diaspora, universality, world literature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